

공연 개최, 반려동물공원 조성 등 서울 정책에 목소리 내는 시민들

최근 4달간 시민제안 668건 접수
교통 관련 정책 제안 가장 많아
지난 9월, 문화공연 개최 제안 수용

최근 4달간 서울시의 정책 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게시된 시민 제안이 66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제안에 대한 공감수는 약 1만 8000건, 조회수는 9만8000여건에 이르며,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11월 상상대로 서울에 접수된 시민 제안은 총 668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시민 아이디어에 대한 공감수는 1만7593건, 조회수는 9만8811건에 달했다.

분야별로 올 8월엔 교통과 주택, 9~10월엔 환경 및 교통, 11월엔 교통 정책에 대한 제안이 가장 많이 게시됐다. 공감 최다 분야의 경우 8월은 건설, 9~10월은 환경, 11월은 교통이었다.

지난 4개월간 시는 전체 시민 제안 가운데 ▲8월은 1건 부분 수용 ▲9월은 1건 수용 ▲10월은 2건 부분 수용 ▲11월은 0건을 수용했다.

올해 8월 상상대로 서울에서 가장 많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행사 모습. /서울시

은 관심을 받은 제안은 월드컵공원 내 '서울링' 설치 강행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공감수 2695건, 조회수 7872건, 댓글수 312건을 기록했다. 시는 향후 서울링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람 공고를 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해당 제안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일기로 했다.

지난 9월 시가 받아들인 시민 제안은 한 달에 하루 오픈된 공간에서 문화 공연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었다. 시는 신규 정책을 마련하는 대신 기존에 진행 중이었던 '서울 거리 공연-구석구석 라이브',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사업을 소개하는 것으로 같음하며, 제안을 수용 처리했다.

올해 10월 시는 대장동대선에 DMC역을 추가해달라는 요청과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을 관내에 조성해줄 것을 촉구하는 민원을 일부 받아들였다. 시는 마포구에서 시행 중인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서 경제성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되면 국토교통부와 역 신설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제안은 우면1지구에 위례과천선 신규 역사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 강북구 변동 '모아타운 1호' 첫삽

2028년 준공·입주 예정
총 1242세대 아파트 건립

서울시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 1호로 선정된 강북구 변동 모아타운이 세입자 이주를 끝내고 공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16일 오후 2시 '변동 모아타운(강북구 변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주택 5개소) 착공 초청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변동 모아주택 1~5구역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변동 모아타운'은 지난 2022년 '모아타운·모아주택 추진 계획' 발표와 함께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그간 서울시와 강북구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받아왔다. 지난달부터 철거를 시작해 오는 2028년 준공·입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상지는 2022년 4월 통합 심의를 통과하고 이듬해 7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 올해 5월 '세입자 보상 대책'을 수립, 갈등 없이 이주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아주택은 기존 재개발 사업

과는 달리 세입자 손실 보상 대책이 부재했으나 시가 2022년 10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를 개정, 전국 최초로 '모아주택 세입자 지원책'을 마련해 주거 이전 비용·영업 손실액 보상 등이 이뤄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모아주택 5개 구역 내 세입자 844명 가운데 조합 설립 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 중인 자와 조합 설립 인가일 전부터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까지 영업 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자, 총 487명에 약 72억원의 손실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시는 통합 심의를 거쳐 일반 분양 총 38세대를 늘릴 수 있도록 사업 시행 계획을 변경했다.

변동 모아타운 내 5개의 모아주택은 가로 주택 정비 사업 방식으로, 기존 793가구를 철거하고 13개동, 총 1242세대(임대주택 245세대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한다.

1~3구역, 4~5구역은 각각 '건축 협정'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고, 부대·복리시설을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우이천변 약 6000㎡ 부지엔 공공 기여를 활용해 산책로와 휴식·운동시설을 만들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교육청 공약추진위, '협력 교육' 당부

정근식 교육감에 핵심비전 제시
자치와 협력 등 함께 노력해야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해야 할 핵심 비전으로 '협력 교육'을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가 제안한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가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가 함께 책무성을 가지고 참여와 소통, 자치와 협력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지난 10년의 혁신교육은



유해 참여와 소통, 자치를 통한 협력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원회는 정 교육감의 공약을 체계화해 5대 영역, 55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실천 계획을 수립해 전달했다. /김현정 기자

근대교육 100년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면서 "앞으로의 100년은 교육 공동체가 공통의 지향점을 공유

5대 영역은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창의와 상생의 미래 역량 교육 ▲자치와 참여의 교육 공동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공감과 소통의 찾아가는 행정이다.

박순성 공약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는 서울 교육이 급변하는 현실에 맞춰 더 깊고 넓은 혁신을 끊임없이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해 이러한 방향성을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으로 표현했다"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임기 동안 협력 교육의 시대가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시민 편의 높은 민원 개선사례 선정

취약계층 폐차 지원 우선지급 '최우수'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하는 정책이 올해 최우수 민원 개선 사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복잡한 신청 서류와 선착순 지급으로 대부

분 중고차 매매 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에 시 대기정책과는 약자 동행 시정 철학을 반영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보조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해 시민 편의를 높였다.

이를 통해 기존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수령했던 중고차 매매 법인의 신청

대수가 2023년 2808대(113억원)에서 올해 268대(13억원)으로 9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취약계층 우선 지원 대수는 3325대에서 3693대로 11% 증가했다.

우수 사례(우수상)로는 ▲공영주차장 다자녀 가족 편의 주차요금 자동 감면 도입(서울시설공단)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신고 시스템 구축 및 인프라 조성(강남구) ▲70년간의 장기·집단 공동 소유를 단독 소유로 정리(중구) 총 3건이 꼽혔다. /김현정 기자

성남시, '송년 콘서트' 무료공연 개최

오는 21일 성남종합운동장서 공연

성남시는 오는 21일 오후 5시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송년 콘서트'를 연다고 밝혔다.

'아듀! 2024~하이! 2025'를 주제로 하는 이날 콘서트는 성남 갓탈런트, 청년프로예술단 댄스팀, 보컬 등으로 구성된 시민예술단의 특별 기획 공연으로 마련된다. 모두 3000명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규모다.

공연 내용은 ▲유백리의 발리댄스 ▲국악양상을 지금차보영의 '사랑아', '난감하네' ▲코리아 주니어 빅밴드의 '넌과 함께' ▲프로라틴 윤여찬·임민영의 라틴댄스 등이다.

/성남(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시민예술단 연합 보컬 4명의 뮤지컬, 락음악 등의 공연 무대와 청년프로 예술단 댄스팀 40명의 한국 팝(K-POP) 댄스 페스티벌도 펼쳐진다.

초대 가수 박상민도 출연해 '지중해', '무기여 잘 있거라' 등을 불러 분위기를 달군다.

이날 공연 무대를 꾸미는 시민예술단은 지난 4월 성남시의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이력이다.

당시 지원한 250개 팀(550명) 중 42개 팀(116명)이 선발됐다. 갓탈런트 예술단 21개 팀(73명), 청년프로예술단 댄스팀 11개 팀(24명), 보컬 10개 팀(19명)이다.

오늘의 날씨

12월 17일 (화)
음력 : 11월 17일

수도권 날씨
-3 ~ 2°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7/2, 동두천 -6/2, 가평 -7/2, 파주 -7/2, 서울 -3/2, 양평 -4/3, 인천 -2/2, 수원 -2/2, 용인 -2/2, 평택 -4/3

백령도 0/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애플 주도 '탈 엔비디아' 속도...AI 시장 판도 바뀌나? /사진 뉴시스
▲엡 더 타임스 "김건희 여사는 한국의 맥베스 부인" 집중 조명

▲尹 탄핵가결에 日정부 "한일 관계 중 요성 변함없어...긴밀 소통"
▲中왕이, 마크롱 외교수석과 회동... "中·유럽 무역전 승자 없다"



▲美 하원 상임위장직 여성 20년만 '전멸'...백인 남성 싸늘이
▲EU, 올해 마지막 외무장관회의...러 15차 제재·시리아 정세 등 논의 /사진 뉴시스